

2022년 제19회 대한민국아동총회 결의문

- 아동의 목소리 볼륨 UP,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start! -

○일시 : 2022년 8월 9일(화) ~ 11일(목)

○장소 : 하이서울유스호스텔,
온라인(Youtube, ZOOM)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사단법인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제19회 대한민국아동총회 전국대회 조별 결의문

1. 장애아동도 쉽게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배리어프리(Barrier-Free)가 적용된 장애아동과 아이들 전용 의견 참여 창구를 각 지자체와 온라인상에 설치하는 것을 제도화해주세요.
2. 교육청에 장애 이해 교육 자문위원회를 신설하여 장애 이해 교육 프로그램 구성에 장애아동을 포함한 아동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해주세요.
3. 아동 관련 정책을 만들 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아동의 목소리가 전달되도록해주세요.
4. 아동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모의 아동총회 실시와 외부 강사가 진행하는 아동총회 등 아동참여기구 홍보를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연 2회 이상 시행해주세요.
5. 각 지역별 투표로 선발된 아동대표가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해주세요.
6. 아동이 낸 목소리에 대하여 최소 주 2건 이상씩 답변해주는 아동 전용 청원 사이트를 행정안전부가 만들어주세요.
7. 교육청과 연계하여 지자체별 만 12세 이하 아동을 위한 아동참여기구 설치를 확대해주세요.
8. 교내에서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교육을 활성화하고 그와 연계되는 00시 의회 같은 대외적 후속활동들을 활성화해주세요.
9. 아동들의 일상적인 참여를 위해 아동 청원 커뮤니티를 만들어 아동의 눈높이에서 답변해주세요.
10. 아동참여기구에서 학교를 다니지 않아 참여의 장애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아동들과 장애가 있어 원활한 참여가 어려웠던 아동들에게도 참여의 기회를 제공해주세요.
11. 교육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아동에게 연령대 맞춤형 정치/투표 이해 교육을 강화해 실시 및 홍보해 주시고, 아동대상 대선, 총선, 지선 모의투표를 실시해주세요.
12. 학생들의 정치참여에 있어 생기는 어려움과 무관심을 해결하기 위해, 해외 우수 정치 교육 제도 및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교육청에서 실시해주세요.
13. 여가부의 청소년 참여 포털 및 아동 참여권을 주제로 UCC와 포스터 대회를 진행 후, 당선작을 아동 참여권 홍보(지역사회 공공장소 및 SNS 광고, 교내 방송 등)에 활용하게해주세요.

2022년 8월 11일

제19회 대한민국아동총회 참가자 일동

제19회 대한민국아동총회 전국대회 조별 결의문 및 제안이유

구분	결의문
1조	<p><input type="checkbox"/> 장애아동도 쉽게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배리어프리(Barrier-Free)가 적용된 장애아동과 아이들 전용 의견 참여 창구를 각 지자체와 온라인상에 설치하는 것을 제도화해주세요.</p> <p>○ 현 상황과 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아동은 기본적인 학교생활에서조차 자신의 참여권을 보장받지 못한다. - 학교, 사회의 어른들은 장애아동이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알고자 하지 않는다. - 장애아동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의견 참여 시스템이나 제도가 마련되어있지 않다. <p>○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장애아동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 장애아동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됨으로써 실질적인 개선이 일어날 수 있다. <p>*장애아동 전용 의견 참여 창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아동이 쉽게 어려움이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장애아동만을 위한 참여 창구 - 수어, 점자, 음성 인식/지원 서비스, AI 서비스 등의 배리어프리가 적용되어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장애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공간
2조	<p><input type="checkbox"/> 교육청에 장애 이해 교육 자문위원회를 신설하여 장애 이해 교육 프로그램 구성에 장애아동을 포함한 아동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해주세요.</p> <p>○ 현 상황과 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지만 장애인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p>○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 이해 교육 자문 위원회’ 를 신설하여 장애인들의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그것을 장애 이해 교육 자문 위원회 교육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3조	<p><input type="checkbox"/> 아동 관련 정책을 만들 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아동의 목소리가 전달되도록 해주세요.</p> <p>○ 현 상황과 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뒷산을 밀어버리고 아파트를 짓는다는 소식에 대통령님께 편지를 썼으나 우리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 아동들에 관련된 문제상황인데도 아동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참여도를 높인다. - 설문조사지에는 정책의 찬반여부와 반대를 한다면 그 이유와 대체 정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작성하는 문항을 만들어 반대하는 의견을 들어본다. - 아동들이 아동관련 정책과 관련하여 불만도가 낮아진다. - 아동들의 정치참여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4조	<p><input type="checkbox"/> 아동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모의 아동총회 실시와 외부 강사가 진행하는 아동총회 등 아동참여기구 홍보를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연 2회 이상 시행해주세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상황과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권리 중에서도 참여권을 직접 행사하는 아동총회 대회와 같은 활동들이 많은 아동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아 많은 아동들이 참여할 수 없다.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에게 아동총회와 같이 아동참여기구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접근성을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 아동권리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은 개인의 의지이나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가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5조	<p><input type="checkbox"/> 각 지역별 투표로 선발된 아동대표가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해주세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상황과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아동권리 관련 부처 별 최고 논의기구이지만 아동이 직접 참여하지 않는다. - 아동이 아동정책 결정에 아동의 의견이 중요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아동의 의견이 정확하지 않고, 잘 휩쓸린다는 고정관념이 있다.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아동대표가 직접 참여한다. - 아동 의견을 수렴하는 사이트를 만든다. - 아동 또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6조	<p><input type="checkbox"/> 아동이 낸 목소리에 대하여 최소 주 2건 이상씩 답변해주는 아동 전용 청원 사이트를 행정안전부가 만들어주세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상황과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을 위한 정책을 만들 때 아동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 아동이 직접 문제 상황 해결을 청원할 수 있는 소통 창구가 부족하다. - 현재 아동 전용 청원 공간인 아동권리보장원 ‘나, 할 말 있어요!’ 코너가 운영 중이

	<p>지만, 실질적인 청원의 기능을 하지 않고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의 청원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그것이 공식적인 답변으로까지 이어지는 아동 청원 공간이 필요하다. <p>○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는 비중이 높아질 것이다. - 아동 청원 사이트의 운영이 활성화된다면, 아동이 자신의 건의사항을 더욱 자신 있게 적극적으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아동의 의견이 더욱 직접적으로 전해져서 요구사항을 더욱 왜곡 없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아동의 정치 참여가 활발해질 것이다.
7조	<p><input type="checkbox"/> 교육청과 연계하여 지자체별 만 12세 이하 아동을 위한 아동참여기구 설치를 확대해주세요.</p> <p>○ 현 상황과 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참여위원회가 개설된 아동친화도시가 있음에도 소수이고, 잘 알려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수도권쪽에 많이 몰려있음) - 아동이 우선시되어야 하는 학교에서조차 아동 참여가 무시되며,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는다. - 아동 중에서도 초등학생에 해당하는 만 12세 이하 아동의 의견은 무시당하기 쉽고, 미성숙하다는 인식이 있다. <p>○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참여기구 활동 시, 캠페인을 통해 12세 이하의 아동의 참여권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다. - 교육청과의 연계를 통해 더 나은 홍보와 함께 학교 현장에서의 아동참여를 보장할 수 있다. - 아동참여기구 설치 확대를 통해 다양한 지역의 아동의 의견을 알 수 있다.
8조	<p><input type="checkbox"/> 교내에서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교육을 활성화하고 그와 연계되는 00시 의회 같은 대외적 후속활동들을 활성화해주세요.</p> <p>○ 현 상황과 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들이 자신의 권리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 선생님들 또한 아동권리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 교내 아동 권리 관련 활동이 매우 적다. - 참여권을 행사할 방법을 알지 못하고 경험도 없다. <p>○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권을 알고 경험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 학교가 아동들의 적극적인 참여의 장으로써 가능하다.

<p>9조</p>	<p><input type="checkbox"/> 아동들의 일상적인 참여*를 위해 아동 청원 커뮤니티를 만들어 아동의 눈높이에서 답변해주세요.</p> <p style="text-align: right;">*일상적인 참여 : 복잡한 절차없이 자신의 의견을 내는 것을 말함</p> <hr/> <p>○ 현 상황과 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의 국민청원은 아동들에게 거리감이 느껴진다. - 아동들이 더 쉽고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 아직 참여권에 대해 어렵게 인식하기 때문에 더 친숙하고 간단한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p>○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과 성인이 함께 플랫폼의 관리자로 활동하며 아동의 입장에서 어른에 말하기 힘든 부분도 해소 - 일정 인원의 동의를 얻어야 답변을 받되, 커뮤니티적은 성격을 부여하여 답변을 얻지 못한 정의에 대해서도 아동들이 서로 자유롭게 의견을 교류 - 플랫폼에서는 아동들에게 현재 정부에서 진행중인 아동 정책에 대해서도 소개 - 높아진 접근성으로 아동들의 의견이 더 많이 나올 것이다. 아동들에게 보다 친숙한 접근을 통하여 많은 아동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아동이 복잡한 절차 없이 자신의 의견을 낼 수 있음 - 플랫폼이 활성화 되면 아동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또한 높아질 수 있고, 아동의 자유로운 의견 표시를 당연시 여기는 사회 분위기 조성 또한 가능함 - 참여권을 어렵게 인식하는 아동들에게 친숙히 다가감으로써 권리에 대한 홍보 효과와 아동의 참여 증가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음
<p>10조</p>	<p><input type="checkbox"/> 아동참여기구에서 학교를 다니지 않아 참여의 장애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아동들과 장애가 있어 원활한 참여가 어려웠던 아동들에게도 참여의 기회를 제공해주세요.</p> <hr/> <p>○ 현 상황과 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 보호 필요 아동)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작년에 제정하긴 했지만, 위원회에 장애아동이 참가, 참여하는 조치는 전무하다. 이를 통해 아동 참여 기구에 장애아동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참여하는 것에는 제약이 많이 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아동 의견 수용 저조) 학교 교칙을 정하는 과정에서 학부모와 교사들의 의견은 반영되나, 학생들의 의견 수용은 잘 되지 않았다. 주민 자치회가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아동들은 회의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자원봉사의 형태로만 참여할 수 있다. - (아동 권리 인식도 부족) 아동권리보장원의 조사 결과, 학교 밖 아동의 아동권리인식도는 91.31점이었지만 막상 체감도는 68.44밖에 되지 않았다. 이로써 아동의 권리가 잘 보장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p>○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총회와 같은 아동참여기구가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p>에 아동 참여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참여기구에서 장애 아동과 학교 밖 아동과 같은 소외된 아동들의 의견도 들어볼 수 있는 활동, 프로그램을 제작해 주세요 - 장애 아동과 학교 밖 아동들이 수월한 참여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호자, 선생님 등 관련된 사람이 참여를 보조해주는 것을 허용해주세요
11조	<p><input type="checkbox"/> 교육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아동에게 연령대 맞춤형 정치/투표 이해 교육을 강화해 실시 및 홍보해 주시고, 아동대상 대선, 총선, 지선 모의투표를 실시해주세요.</p> <p>○ 현 상황과 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는 선관위가 제작한 선거법 안내 영상 등을 시·도교육청에 전달하는데 그치는 등 교육 당국이 주도적으로 선거교육을 집행하지 않아 참정권 확대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대처로 아동들이 제대로 된 선거교육을 받지 못하고 성장하고 있음 - 시민단체인 한국 YMCA, 청소년참정권확대운동본부 등에서 2017년 19대 대선부터 지속적으로 청소년 모의투표를 진행해오고 있음 - 제대로 된 선거교육을 받지 못해 정치·선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도 없이 투표에 참여하거나 출처 불분명한 온라인 게시물에 쉽게 휩쓸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아동들이 모의투표 자체를 모르거나 알아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동 유권자 모집이 너무나 저조함. 19대 대통령 선거 때는 전국 청소년 유권자가 6만여 명이었으나, 21대 총선 때는 8천 2백여 명, 20대 대선과 8회 지선 때는 각각 8천여 명과 1만 2천여 명으로 유권자 수가 줄고 있음 <p>○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대 맞춤형 모의투표 교육과 홍보를 통해 모의투표는 물론, 아동들이 앞으로 살아야 할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논란과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아동들이 성숙한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음 - 교육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모의투표를 진행한다면 시민단체가 주관하는 현재보다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어 아동들의 모의투표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를 높일 수 있음
12조	<p><input type="checkbox"/> 학생들의 정치참여에 있어 생기는 어려움과 무관심을 해결하기 위해, 해외 우수 정치 교육 제도 및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교육청에서 실시해주세요.</p> <p>○ 현 상황과 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정치참여교육이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인터넷매체를 통한 극단적인 정치참여를 접하며 학생들의 정치적 판단에 있어 혼란을 야기한다. - 정치에 관심이 있는 아동보다 정치에 무관심한 아동이 많다. - 현재 사회 교과목을 통한 이론적이고 형식적 요구만 진행되고 있으며, 이론을 적용하는 실질적 정치참여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청소년이 정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실제적인 정치참여교육의 예시로 정치인과의 토크콘서트 개최, 대통령선거나 지방선거에 대한 모의투표를 실시한다. - 독일의 ‘보의텔스바흐 합의(개방성, 다양성, 참여성)’와 정치교육 의무화를 도입하고, 미국의 정치교육 중 믹바 체인지(Mikva Change) 프로그램과 같이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정치활동을 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선거운동, 정치활동)을 개설한다. - SNS 홍보문이나 카드뉴스를 통해, 실제적인 청소년 정치참여 사례 소개나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다.
13조	<p>□ 여가부의 청소년 참여 포털 및 아동 참여권을 주제로 UCC와 포스터 대회를 진행 후, 당선작을 아동 참여권 홍보(지역사회 공공장소 및 SNS 광고, 교내 방송 등)에 활용하게 해주세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상황과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참여권을 증진할 여러 누리집이나 행사, 위원회 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부족하여 참여율이 저조함 - 아동들이 직접 의견을 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인식 때문에 참여를 잘 하지 않음 - 저조한 홍보율과 함께 아동 참여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여, 관련 활동의 참여도가 낮음 - 너무 많은 수의 포털 사이트가 존재함으로 인해 관심도가 분산되고 혼잡함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털 홍보를 통해 아동 참여권에 관한 많은 프로그램이 생기고 아동들이 그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진정한 아동에 의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음 - 아동들의 참여권을 증진시키며 참여권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청소년 참여 포털이 홍보 효과로 인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음 - 더 많은 아동들이 주체적으로 활동하며 어렵게 인식되었던 아동 참여권에 대한 아동들의 생각이 바뀌어 더욱 활발한 아동 참여를 기대할 수 있음 - 지역사회 공공장소 및 SNS 광고, 교내 방송 등의 홍보를 통해 더욱 실효성 있는 홍보가 가능할 것임